



#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

제 19호: 2026년 4월

**forv/s**  
**mazars**



# Contents

## 4 세법 업데이트

최근 세무 주요 판례 및 제도 동향

## 6 인사 & 급여 업데이트

2026년 주요 급여·연금 및 원천징수 제도 변경

## 8 회계감사 업데이트

회계 및 감사의 품질 제고 관련 최근 제도 동향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현금흐름표와 무형자산 관련 프로젝트

진행 및 회계기준원의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실무 논의

## 12 인사이트

글로벌 및 한국 경영진 2026 전망 보고서

## 세법 업데이트 최근 세무 주요 판례 및 제도 동향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인정 판례를 비롯해, 거주자 판정 기준 명확화 및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 등 주요 세무 제도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 세법 업데이트

## 최근 세무 주요 판례 및 제도 동향

### 대법원 판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인정

대법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0809, 상고기각)

- **핵심 판단:** 부담금은 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과되더라도, 벌금·과태료와 같은 “제재”로 보기 어렵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유도적·조정적(특별)부담금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실무 포인트:** 과거 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기간(통상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내 사업연도에 대해 환급 가능성 검토 필요. 다만 2025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문언이 개정되어(“제재로서” 문구 삭제 등) 향후 적용은 추가 해석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행규칙: 거주자 판정 관련 “일시적 출입국” 사유·입증자료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2026. 3. 20. 시행으로 개정되어, 거주자 판정에서 일시적 출입국 사유 및 입증자료의 범위가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관광·질병 치료·친족 경조사·출장/연수 등 사유를 예시로 열거하고, 사유별로 입증 가능한 자료(관광시설 입장권/영수증, 진단서·처방전, 병적증명서, 기타 객관적 입증자료 등)를 추가하였습니다.
- **실무 시사점:** 장기 해외체류자(임원·주재원·고액자산가 등)의 거주자 판정에서 “일시적 입국/출국” 주장 시, 사실관계 및 증빙 적합성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보관·정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전면 시행)

국세청은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선택·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 **핵심 내용:** 정기조사 사전통지 시, 납세자가 통지일로부터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희망 조사 시기를 선택(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적용 유의:** 탈세제보 등 명백한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특별(비정기)조사 사안은 예외로 합니다.
- **시사점:** 조사 시기 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은 결산·감사·주총 등 일정과 연계해 대응 전략을 세우되, 사전 공개되는 점검항목 등을 활용한 선제적 리스크 점검이 중요합니다.

인사 & 급여 업데이트

## 2026년 주요 급여·연금 및 원천징수 제도 변경

2026년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출산·보육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등 급여 및 원천징수와 관련된 주요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 인사 & 급여 업데이트

## 2026년 주요 급여·연금 및 원천징수 제도 변경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2026년 7월부터 적용)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간 평균한 값을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025년 7월 ~ 2026년 6월	2026년 7월 ~ 2027년 6월
하한액(부담금)	400,000 원 (18,000 원)	410,000 원 (19,000 원)
상한액 (부담금)	6,370,000 원 (302,570 원)	6,590,000 원 (313,020 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2026.03.0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 수별로 아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 원으로 적용)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현행	개정
1명	12,500 원	20,830 원
2명	29,160 원	45,830 원
3명 이상	291,160 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 원	45,830 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33,330 원

### 출산·보육 비과세 한도 확대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별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비과세 한도	근로자 1인당 20만 원	자녀 1인당 20만 원

## 회계감사 및 회계기준 업데이트 회계·감사 제도 변화와 회계기준 논의 동향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와 지정감사 확대 등을 통해 회계·감사 품질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IASB는 현금흐름표와 무형자산 회계기준 개선 논의를 진행중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제1118호 도입을 앞두고 재무제표 표시 및 분류와 관련된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회계감사 업데이트

## 회계 및 감사의 품질 제고 관련 최근 제도 동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회계부정 예방 및 외부감사 품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회계 및 외부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및 감사인 모두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외부감사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기업군에 대해서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지배구조가 불안정한 대형 비상장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

#### 지정감사 확대의 배경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불안정한 지배구조 여부 등을 고려된 직권지정 감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하거나 임직원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받지 않는 구조로 인해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직권지정 감사 확대 내용

- **적용대상:**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비상장회사 중, 최근 3년 내 최대주주 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한 경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 실효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여 직권지정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적용기준:** 자산규모 기준은 상장사 주기적 지정 기준과 유사한 수준을 기준으로 검토 중이며, 세부 요건은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 **취지:**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정감사 확대는 상장·비상장 간 규율 격차를 완화하고 회계투명성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서, 해당 기업들은 향후 감사인 선임 방식, 감사 비용, 감사 대응 체계 등에 일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 동향을 유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추진

금융당국은 회계부정과 부실감사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회계부정 책임자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적용대상 확대:**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주도하거나 이를 지시한 임원뿐만 아니라, 공식 직함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업무집행 지시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제도 도입:** 위반 동기가 ‘고의’로 판단된 경우, 해당 책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5년) 상장사 임원의 취업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상장사는 취업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시키는 것이 제한됩니다.
- **제재 실효성 보완:** 취업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개인뿐 아니라 이를 위반하여 임원을 선임한 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 부실감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감사시간 과소투입에 대한 관리 강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사 투입 시간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정상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보아 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사인 감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됩니다.
- **사후 조치 강화:** 점검 결과 부실감사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교체(지정감사), 재무제표 심사를 통한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감사품질 관리 미흡에 대한 제재수단 보완:** 상장사 감사인이 등록요건(품질관리 체계 등)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기존의 지정제외 점수부과 방식 외에 위반 수준에 따른 업무정지·감사제한 등 추가 제재 수단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회계기준 업데이트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현금흐름표와 무형자산 관련 프로젝트 진행 및 회계기준원의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실무 논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최근 회의에서 논의된 현금흐름표, 무형자산 등 여러 프로젝트의 진행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회계기준원에서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도입과 관련하여 실무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현금흐름표 관련 IASB 논의 동향

IASB는 현금흐름표 및 관련 항목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에서 회계기준 제정 단계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현금흐름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 하에서는 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며, 단계별 논의를 거쳐 공개초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 영업·투자·재무활동 현금흐름 분류의 일관성 제고

현금흐름의 분류가 기업별로 상이하여 비교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라, IASB는 영업·투자·재무활동의 분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정 거래의 성격에 대한 해석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비현금거래 정보의 공시 내용 및 표시 위치 명확화

현금의 유출입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에 대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로 인하여, 비현금거래의 공시 범위와 공시 위치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금흐름표와 주석 간 정보의 연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결합 관련 지급액, 파생상품 거래, 정부보조금 수취액 등의 분류 기준 개선

사업결합 지급액, 파생상품 장산, 정부보조금 수취 등은 현금흐름 분류에 있어 실무상 판단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으로, IASB는 이러한 항목에 대해 보다 일관된 분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류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기업 간 현금흐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논의의 주요 목적입니다.

### 현금성자산의 정의 및 적용에 관한 일관된 해석 유도

현금성자산의 정의와 적용 방식이 기업별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IASB는 현금성자산의 범위와 특성에 대해 보다 일관된 해석을 유도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잔액과 관련된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 무형자산 관련 IASB 논의 동향

IASB는 무형자산 회계처리가 최근의 기업 활동, 특히 IT·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는지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상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 요건이 클라우드 컴퓨팅, 애자일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 등 신규 거래 유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배경입니다. 특정 거래 유형에 대한 개별 규정 마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무형자산 전반에 적용 가능한 원칙 중심의 개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 - 서비스 계약과 자산의 구분, 고객의 통제 여부 판단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의 경우, 고객이 특정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ASB는 이러한 계약이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한 서비스 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의 명확성이 충분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 애자일(Agile) 소프트웨어 개발 - 연구단계와 개발단계 구분의 실무 적용 가능성

애자일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반복적인 개선과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 기준에서 요구하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명확한 구분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ASB는 이러한 개발 방식에 대해 기존의 단계 구분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 자원 및 인공지능(AI) 관련 자산 - 기존 무형자산 기준으로의 포섭 가능성 검토

데이터 자원 및 인공지능 관련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IASB는 이러한 자산이 현행 무형자산 기준의 정의 및 인식 요건에 부합하는지, 또는 기존 기준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성격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회계기준 업데이트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현금흐름표와 무형자산 관련 프로젝트 진행 및 회계기준원의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실무 논의

###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실무 논의 사항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도입을 앞두고, 정착지원 TF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수익 및 비용의 분류 기준과 관련하여 실무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연결실체 관점에서의 주된 사업활동 판단과 이에 따른 금융자산 투자수익의 범주 분류가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논의는 기준서 해석을 확정하는 성격은 아니며, K-IFRS 제1118호 적용 과정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 논의 사례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 주요 쟁점

- 연결실체 관점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판단하는 경우,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금융자산 투자수익을 연결재무제표상 일괄적으로 영업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금융자산 투자의 성격을 보다 세분화하여, 보고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을 구성하는 목적의 투자와 여유자금 운용 등 유동성 관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수적 투자를 구분한 후 각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 논의 결과 개요

- 다수 의견은 금융자산 투자 전부를 하나의 범주로 일괄 판단하기보다는, 자산의 성격, 보유 목적, 기대되는 투자성과 등 공유되는 특성에 따라 투자자산을 구분하고, 그중 보고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만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는 접근이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아울러, 주된 사업활동에 대한 판단은 보고기업, 즉 연결실체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되,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사실과 상황에 근거한 판단이어야 하며, 해당 평가 결과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영향에 대해 공시가 요구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인사이트

## 글로벌 및 한국 경영진 2026 전망 보고서

포비스 마자르가 전 세계 40개국 3,000여 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경영진 전망 보고서(C-suite Barometer)를 발간했습니다.



매년 발간되는 경영진 전망 보고서는 글로벌 경영진의 인식과 우선순위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로 자리 잡았다. 올해 한국 응답 결과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글로벌 경영진에 비해 한국 경영진이 한층 신중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적인 분위기 역시 낙관보다는 경계와 균형에 무게가 실려있다.

국내 CEO와 CFO들을 직접 만나보면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분명하게 느껴진다. 성장에 대한 기대보다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앞서는 모습이며, 이는 이번 조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글로벌 표본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자신 있다’고 답한 한국 경영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성장을 전망하더라도 표현은 비교적 절제되어 있었고, 수치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2026년 매출 성장을 예상한 한국 응답자는 64%로 글로벌 평균(92%)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전년 대비 28%p 감소한 수준이다. 주요 글로벌 트렌드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매우 자신 있다’고 답한 비율도 한국은 9%에 그쳐 글로벌 평균 43%와 대비된다.

다만 기업 차원의 신중함과 달리 개인 차원의 AI 활용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OpenAI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유료 ChatGPT 사용자 수 기준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상적 활용과 전사적·전략적 AI 도입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우려도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자사 데이터가 ‘완전히 보호되고 있다’고 답한 한국 경영진은 14%에 그쳤으며, 이는 2025년 대비 26%p 감소한 수치다. 글로벌 평균은 40%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올해 한국 경영진 전망 보고서는 경영 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회복 탄력성 강화에 집중하는 경영진의 모습을 보여준다. 글로벌 전반에서 낙관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경영진은 보다 절제된 선택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일 수 있다.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에 성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전략적 목표를 일관되게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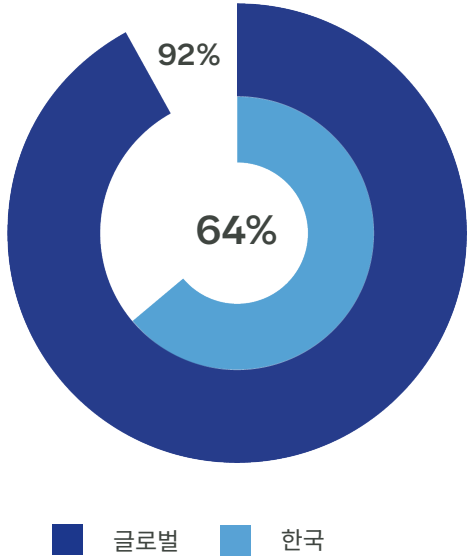
이 같은 차이는 한국 경제의 구조를 고려하면 낯선 결과는 아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상 환율이나 관세 정책과 같은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최근 수출 지표가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는 주로 반도체 산업의 영향으로,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전통 산업 전반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관리할 수 있다고 답한 한국 경영진은 44%에 그쳤고, 이 중 ‘매우 자신 있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반면 글로벌 응답자의 88%는 비용 관리에 자신감을 보였으며, 그중 44%는 ‘매우 자신 있다’고 답했다. 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 역시 이러한 신중한 기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한국 경영진은 외형 확장보다는 기본 체력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익성 방어와 운영 효율성 제고가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으며, 투자 계획 또한 글로벌 평균 대비 다소 보수적인 모습이다. 해외 진출 전략 역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한국 응답자의 42%는 현재 해외 확장 계획이 없다고 답해, 글로벌 평균 16%와 비교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럼에도 미국, 일본, 중국은 여전히 주요 진출 후보로 꼽히며, 30% 이상이 이들 국가 가운데 한 곳으로의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시장 다변화 노력도 이어지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영국과 독일 두 나라만이 확장 후보 상위 10개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과 AI에 대한 접근에서도 비슷한 신중함이 나타난다. AI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넓게 형성되어 있지만, 실제 도입 범위와 속도는 글로벌 평균보다 제한적이다. AI 도입을 위해 조직 구조를 재편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36%로, 글로벌 평균 80%와 큰 차이를 보였다. AI가 기존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한국은 17%로 글로벌 평균 29%보다 낮았다. 향후 투자 규모 역시 글로벌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많은 경영진이 AI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방식, 비용과 리스크 관리 등 현실적인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확장보다는 최적화에 초점을 둔 접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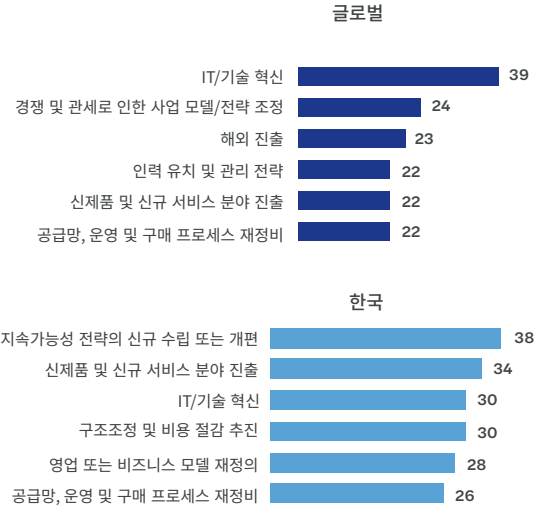
줄리안 에르베  
리드 파트너  
한국의 포비스 마자르



한국 경영진 중 2026년 자사 비즈니스 성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

향후 3~5년간 경영진이 설정한 주요 전략적 우선순위

응답자 비율(%)



경영진의 자신감 수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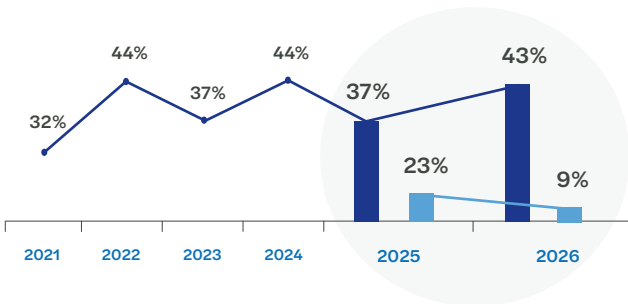
글로벌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비율 (%)	32%	44%	37%	44%	37%	43%

한국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비율 (%)	-	-	-	-	23%	9%

기업 환경에 영향을 주는 핵심 트렌드 전반에 대해 '매우 자신있게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



투자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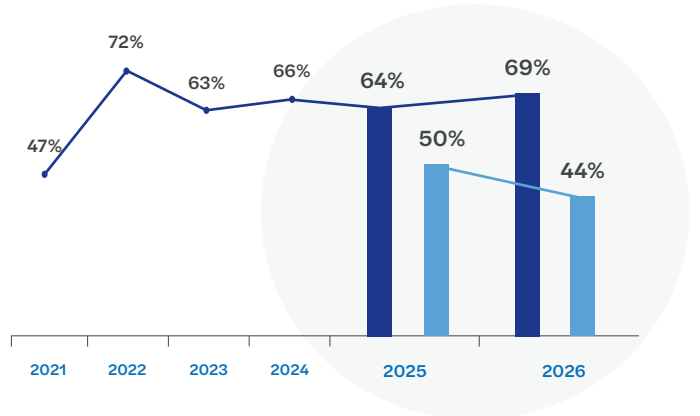
글로벌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비율 (%)	47%	72%	63%	66%	64%	69%

한국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비율 (%)	-	-	-	-	50%	44%

각 분야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의 평균치



# 글로벌 및 한국 경영진 2026 전망 보고서

보고서 다운로드

자세한 내용은 [forvismazars.com/kr](https://forvismazars.com/kr)에서 확인하세요.



# 핵심 지표

## 주요세율 및 4대 보험

###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6.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8.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41.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6.2%
10억원 초과	49.5%

\* 지방소득세 포함

###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2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미만	24.2%
3000억원 초과	27.5%

\* 지방소득세 포함

### 4대 보험

과세표준	사업자 부담비율	근로자부담비율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4.1%	4.1%
국민연금	4.75%	4.75%
고용보험	0.9% + (0.25% ~ 0.85%)	0.9%
산재보험	0.7% ~ 18.6%	-
총합	월 평균보수의 약 10.6% ~ 28.6%	월 평균보수의 약 9.75%

위 표에 기재된 사업규모 및 사업종류에 따른 추가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료에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Contacts

## 이정민

대표이사, 감사 및 인증 총괄  
jung-min.lee@forvismazars.com

## 박승하

파트너, 부회장, 세무  
seung-ha.park@forvismazars.com

## 심현호

파트너, 코리안 데스크 총괄  
hyun-ho.shim@forvismazars.com

## 줄리앙 에르보

리드 파트너, 아웃소싱 및 국제 데스크  
julien.herveau@forvismazars.com

## 심규택

파트너, FS (금융기관) 총괄  
gyu-taek.sim@forvismazars.com

## 정상안

파트너, 세무 총괄  
sang-an.jeong@forvismazars.com

Forvis Mazars Group SC는 선도적인 글로벌 전문 서비스 네트워크인 Forvis Mazars Global의 독립 회원사입니다. 감사, 세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국제 통합 파트너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0,000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전문성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비즈니스 성장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포비스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인 Forvis Mazars Group SC의 독립 회원사로서 12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회계감사, 세무, 자문,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네트워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발행물 제작에 참여한 마자리안:

이정민, 줄리앙 에르보, 박승하, 정상안, 박동원, 김양규, 장유미, 강민경, 공태희

© 2026년 4월

forvismazars.com/kr

**forvis**  
**mazars**